[論 文]

高麗佛畫의 主題와 그 歷史的 意味

洪 潤 植*
(東國大學校)

〈目 次〉

Ⅰ. 序 言
Ⅱ. 高麗佛畫의 類型
Ⅲ. 高麗佛畫와 淨土敎
1. 高麗淨土敎畫의 特徵
2. 高麗淨土敎畫에 있어서의 來迎圖
1) 來迎圖의 性格과 그 展開
2) 高麗佛畫에 있어 來迎圖와 몇가지 問題點
Ⅳ. 高麗地藏圖의 淨土敎畫的 性格
Ⅴ. 高麗觀音畫의 淨土敎畫的 性格
Ⅵ. 高麗佛畫에 있어 淨土敎的 主題의 歷史的 意味
Ⅶ. 結 語

Ⅰ. 序 言

오늘에 傳하는 高麗佛畫는 80餘點을 헤아린다. 그러나 이중 불과 몇점이 國內에 保存되고 있을 뿐 대부분이 日本에 傳하고 또한 歐美지역에도 몇點이 傳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 高麗佛畫의 現物을 接하기는 어렵고 부득이 韓國에서 發行된 『高麗佛畫』[1]와 日本에서 發行된 『高麗佛畫』[2]를 基本資料로 하여 現存하는 高麗佛畫의 主題에 대한 파악을 시도하고 그 歷史的 位置를 밝혀 보려 한다.

日本에 傳하는 高麗佛畫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을 筆者가 10餘年前에 直接調査한 바 있고 그에 대한 硏究報告書도 刊行한바 있다.[3] 그리하여 여기서는 現存하는 高麗佛畫의 하나 하나의 作品에 대한 硏究보다는 이들 高麗佛畫가 지닌 主題가 무엇이었던가를 밝혀 보려 하는 바이다.

Ⅱ. 高麗佛畫의 類型

오늘에 전하는 高麗佛畫를 類型別로 나누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진다.

1. 觀經變相圖 4點

1) 『高麗佛畫』, 中央日報社, 1981.
2) 『高麗佛畫』, 朝日新聞社, 1980.
3) 洪潤植, 『高麗佛畫의 硏究』, 同和出版公社, 1984, pp. 86－108.

2. 彌勒下生經變相圖　2點
3. 阿彌陀如來關係圖　19點
   (1) 阿彌陀如來圖(5點)
   (2) 阿彌陀三尊圖(7點)
   (3) 阿彌陀九尊圖(7點)
4. 觀世音菩薩圖　12點
5. 地藏菩薩圖　10點
   (1) 地藏菩薩圖(6點)
   (2) 地藏十王圖(3點)
   (3) 觀音地藏圖(1點, 觀音圖에 포함시켜도 무방함)
6. 五百羅漢圖　5點
7. 其他 浮石寺 祖師堂 壁畫등 3點
8. 寫經變相　13點

이상에서 보면 현존하는 高麗佛畫는 8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지만 여기 寫經變相은 일반적인 彩色畫로서의 佛畫와는 구분되어야 하므로[4] 나머지 7가지 佛畫만을 놓고 그 類型構造를 보면 6·7의 五百羅漢圖와 浮石寺 祖師堂의 壁畫 등만을 제외하면 그 모두가 主題를 西方淨土로 하고 있는 것 같아 이 點이 주목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觀經變相과 阿彌陀三尊 및 阿彌陀九尊 등의 阿彌陀關係圖가 高麗佛畫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한편 地藏關係圖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 같은 地藏關係圖 등도 淨土敎畫의 새로운 전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觀音圖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간과할 수 없게 되는데 이들 觀音圖는 補陀洛迦山의 觀音을 나타낸 것이 대부분이란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 觀音圖는 補陀洛淨土를 나타낸 그림임에 틀림없는 사실이라 하겠으나 이들 觀音의 淨土로서의 補陀洛淨土가 西方淨土의 발상과 결코 무관 하지 않다고 생각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阿彌陀淨土關係 高麗佛畫의 資料는 高麗의 阿彌陀淨土敎信仰의 한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것 같아 더욱 주목을 끌게 한다. 왜냐하면 같은 淨土敎畫라 하더라도 그 淨土敎가 지향하는 바가 다름에 따라 특히 敎理의 어떤 부분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그림의 내용이 달라짐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高麗佛畫에 있어 淨土敎畫로서의 高麗佛畫는 우선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1. 觀經變相은 無量壽經의 사상을 많이 수용 하였음이 발견 된다.[5]
2. 淨土敎畫가 성행하였으나 淨土敎畫로서의 대표적인 유형을 이루는 來迎圖가 발달하지 않

4) 寫經畫는 手法上으로도 일반적인 불화와 구분 될 뿐 아니라 信仰的인 機能面에서도 區分되어짐이 그것이다.
5) 前揭註 3) 參照.

았다.[6]

3. 일반적으로는 禪宗에서 중요한 관심사로 삼는 授記의 장면을 往生人에 대한 阿彌陀如來의 授記圖로 묘사하였다.

4. 淨土的信仰의 새로운 전개로 地藏十王信仰이 성행하였다.

이상의 諸問題 中 授記圖와 來迎圖는 혼동하기 쉽다. 그리하여 오늘에 전하는 高麗佛畫中 來迎圖로 단정 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그대로 來迎圖로 생각하여 왔을 뿐 아니라 授記圖에 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실정이란데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本稿에서는 이상과 같은 高麗佛畫에서 來迎圖와 授記圖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는 韓國淨土敎사상의 전통적 특징을 살피는데에도 기여할뿐 아니라 다른 한편에서는 高麗淨土敎畫가 지니는 한 특성을 살피는데에도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Ⅲ. 高麗佛畫와 淨土敎

1. 高麗淨土敎畫의 特徵

한마디로 阿彌陀淨土敎라 하더라도 그 사상적인 전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7] 따라서 淨土敎畫도 정토교의 신앙사상전개가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日本의 淨土敎畫는 觀經變相과 來迎圖가 크게 발전하였는데, 이는 日本 淨土宗의 淨土敎가 융성하는데는 『觀無量壽經』을 所依經典으로 한 淨土敎信仰이 발전됨으로써[8] 觀經變相의 도설이 성행하였고, 한편 『觀無量壽經』에 의한 易行信仰의 강조가 阿彌陀來迎信仰을 고취시켰으며 그에 따른 來迎圖가 많이 도설되었음은 그를 일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圖 1).

앞에서 살핀 바에 의하면 高麗의 淨土敎畫에는 來迎圖가 발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高麗觀經變相은 4점이 전하나 觀經變相 중 散善義인 第十四·第十五·第十六觀經變相에서는 의례히 도설되어야 할 來迎圖가 이 觀經變相에는 주목되지 않았다. 비록 오늘날에 전하는 高麗의 觀經變相이 4점에 지나지 않고 그 중에도 來迎圖가 도설될 수 있는 觀經十六觀變相은 불과 2점밖에 안되지만, 이들 2점 모두에 來迎圖를 주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면, 이들 觀經變相이 제작될 당시에는 來迎思想이 발달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 이와같은 사실은 거의 같은 시대에 그려진 고려말기의 高麗佛畫로서 독립된 來迎圖로 알려진 그림들은 그 자세 등이 내영 형식을 취하였으

6) 前揭註.

7) 『淨土三部經』 중 어느 경전을 所依經典으로 하느냐에 따라 정토교 사상의 전개는 달라진다. 元曉가 그의 저서 『阿彌陀經疏』에서 『淨土三部經』을 대비하여 같은 점과 다른 점 등을 논술하였음도 그를 일러주는 것이다.

8) 日本 淨土宗의 所依經典은 『觀無量壽經』이며 그에 따른 觀經變相이 성행하였음이 그것이다.

나, 그를 내영도로서 이해할 수 없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면 왕생인에 대한 授記圖가 도설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정토교 이해의 한 특성을 살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高麗의 觀經變相은 관경변상이면서 無量壽經 사상을 많이 수용하였다는 특징을 지닌다고 함은 필자의 「高麗觀無量壽經變相의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살핀 바 있어 여기에서는 재론을 피하지만 우선 西福寺소장 觀經變相의 상단 淨土變相 부분도는 분명히 無量壽經 사상에 의거한 것이다. 知恩院소장 觀經變相圖 역시 無量壽經 사상을 많이 수용하였다. 이는 분명히 高麗의 淨土敎 사상은 無量壽經 사상이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일러주는 좋은 증거가 된다. 그렇지 않고는 觀無量壽經變相에 無量壽經 사상이 끼어들리가 없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정토교 사상은 신라시대에 크게 융성하였다. 그런데 신라시대에 융성하였던 정토교 사상의 주요 관심사는 無量壽經 사상이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9] 왜냐하면 이와같은 신라시대 이래의 『無量壽經』 중심의 정토교 사상이 고려말까지 전승되었고, 한편 조선시대까지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10] 한국淨土敎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되기 때문이다.

高麗의 觀經變相에 來迎圖가 도설되어야 할 散善義 부분에 來迎圖 대신 授記圖가 도설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高麗淨土敎의 한 특징을 나타낸 것이 분명하다. 흔히 『無量壽經』 중심의 정토교 신앙은 上根機人의 것이요, 『觀無量壽經』 중심의 정토교 신앙은 下根機人의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전자는 그 信行門이 어렵고, 후자는 易行門이라고도 한다.[11] 그런가 하면 한편 고려시대의 정토교 신앙은 禪淨融合 사상에 바탕한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12] 그리하여 普照와 같은 이는 自性彌陀·唯心淨土를 강조하게 된다.[13]

이상을 다시 정리하여 고려시대의 정토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圖 2).

1) 『無量壽經』 중심의 정토교이다. 이 같은 정토교에서 극락정토에의 왕생은 上根機人이 아니면 어렵다.
2) 禪淨融合의 정토교이다. 이는 宋 佛敎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나 고려후기 사회가 추구하는 하나의 사상적인 경향이기도 하다.

결국, 이 같은 경향을 갖는 정토교는 禪家의 입장에서 왕생정토보다는 唯心淨土를 주장하게 되고, 따라서 自性彌陀를 강조하게 된다. 그러나 禪家에 의하여 이 같은 정토교 사상의 이해가 가능하였던 것은 전통적으로 한국의 정토교 신앙이 〈無量壽經〉 중심의 사상적인 전통이 유지되어 온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가 여기에 이르면 고려시대의 淨土敎畫에는 왜 來迎圖가 발달하지 않았는가 하는 해답에

9) 洪潤植, 『淨土思想』, 한겨레社, 1981.
10) 前揭書 참조.
11) 元曉의 「阿彌陀經疏」 顯了十念과 隱密十念 참조.
12) 洪潤植, 「高麗이후의 淨土敎」, 『淨土思想』 참조.
13) 普照, 「念佛要門」;
李鍾益, 「高麗普照國師の研究」(프린트本 : 日文), 1973;
洪潤植, 『淨土思想』 참조.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즉 왕생사상이 강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는 왕생사상이 이해되었다 하더라도『觀無量壽經』중심의 범부 중생이 누구나 왕생할 수 있다는 易行門으로 이해된 것이 아니라. 『無量壽經』중심의 難行門으로 이해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리하여 이 같은 上根機人의 難行門으로 이해된 왕생사상은 自性彌陀·唯心淨土 사상과도 접근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하여 왕생보다는 성불에 관심이 많았고 따라서 來迎圖보다는 授記圖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高麗觀經變相圖에 도설된 授記圖는 禪宗에서 말하는 授記와는 차이가 있다. 즉 觀經變相에서 授記는 왕생인이 왕생 후에 阿彌陀如來로 부터 장차 성불이 보장되었음을 증명받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왕생사상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왕생사상과는 무관한 禪家에서 말하는 授記와는 차이가 있으나 成佛이 보장되었음을 증명한다는데서는 같은 뜻을 지니는 것이다. 이 같은 授記에 대한 이해와 전술한 고려정토사상이 지니는 특징적인 요인이 한 배경을 이루어 고려의 정토교에서는 來迎圖보다, 授記圖가 성행하였던 것으로 믿어진다. 이 같은 경향은 조선시대에도 계승되어 끝내 한국에서는 來迎圖의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생각하면 이상과 같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는 전통사상적인 일면, 혹은 上根機人에게 유행하였던 淨土敎 이외에 또다른 계통의 정토교 신앙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민중사회에 유행하였던 정토교, 혹은 信仰儀禮의 측면에서 살필 수 있는 정토교가 그것이다. 高麗佛敎는 상류층에 의하여 학문적으로 혹은 사상적으로 이해되어 온 불교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信仰儀禮를 통하여 보다 널리 민중사회에 유포되어 온 불교가 있었다.[14]

이상에서 살펴 온 고려의 정토교는 여기에서 전자를 말하며, 또한 후자의 입장에서 살필 수 있는 정토교 신앙도 있다. 즉 高麗 정토교신앙에서의 왕생사상은 이와 같은 후자의 정토교신앙에서 더욱 강조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을 끌게 하는 것은 전자의 淨土敎는 전술한 대로 禪宗과 결합하고 후자는 密敎와 결합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高麗佛畫와의 관계에서 보면 觀經變相圖와 阿彌陀尊像圖 등이 전자에 가까운 것이며 地藏十王圖 등은 후자에 가까운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전술한 대로 후자의 淨土敎信仰 계통이 왕생사상을 강조하게 되었다면, 여기에서 來迎圖를 찾을 수 없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현존 자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阿彌陀來迎圖는 이같은 계통의 정토교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바꾸어 생각하면 地藏圖와 地藏十王圖 등이 이 계통의 정토교신앙에서 來迎圖의 기능을 다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地藏菩薩은 冥府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중생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신앙적인 기능을 갖는 보살이기 때문이다(圖 3).

孤魂을 천도하는 佛敎儀式에 來迎儀式이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보살이 引路王菩薩이다. 즉 이 引路王菩薩은 死後의 영혼을 극락세계에 까지 안내해 가는 보살로 신앙된다. 즉 來迎의 菩薩인 것이다. 오늘날의 佛敎儀禮에서 보면, 引路王菩薩圖를 도설하는 경우는 찾아 볼 수 없고 '南無大聖引路王菩薩'이라는 幡旗를 들고 내영 행렬을 이루는 경우는 많은데, 이와같이 韓國의 정토

14) 洪潤植, 『韓國佛敎儀禮の硏究』「高麗時代의 佛敎儀禮」편, 東京, 隆文館, 1976.

교신앙에서는 來迎圖를 도설하지 않았으나 來迎儀式은 발달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15]

그런데 이와 같은 계통의 淨土敎信仰儀禮를 종합적으로 도설한 佛畫가 있는데 이를 甘露幀畫라 한다.

甘露幀畫의 구도는 上·中·下 3단으로 되었는데 하단은 六道衆生의 모습을, 중단에는 영혼천도를 위하여 齋儀式을 올리는 광경을, 그리고 상단은 극락 내영의 모습이 도설되었다. 즉 이 그림의 내용은 六道衆生이 死後 齋儀式(四九齋)을 올림으로써 내영을 받아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는 뜻을 지닌다. 그런데 상단 중앙에 密敎의 七如來가 도설되는데 이는 齋儀式에서 신앙의 중심적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신앙의례가 밀교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임을 나타내 준다. 그리고 그 좌우에 來迎圖가 도설된다. 이때의 來迎圖에는 阿彌陀三尊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阿彌陀·引路王·地藏三尊 혹은 보다 많은 聖衆이 내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히 주목을 끌게 하는 것은 이 來迎圖에 引路王菩薩 혹은 地藏菩薩이 도설되었다는 것이다. 引路王菩薩의 양식은 깃발을 들고 있음에서 쉽게 그 특징을 살필 수 있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韓國佛敎에서 來迎圖는 영혼 천도 의식의 내용을 담은 밀교적인 성격을 지닌 甘露幀畫에서 발견된다. 이와같은 甘露幀畫에서의 來迎圖가 독립하여 來迎信仰을 성립시켰는데 引路王菩薩신앙이 그와같은 것이다. 이는 마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한 來迎圖가 觀經變相圖에 먼저 도설되고, 이어 내영의 신앙이 강조되면 독립적인 來迎圖가 발달하게 되었다는, 전술한 來迎圖의 전개 과정과 그 양상을 같이하여 무척 흥미를 끌게 한다.

오늘날 甘露幀畫는 고려불화에서는 물론 조선중기 이상의 것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引路王菩薩신앙을 수용한 영혼 천도 의식은 고려시대에도 성행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引路王菩薩신앙은 일찌기 唐에서 성행하였고[16] 이같은 唐의 引路王菩薩신앙이 신라에 수용되어 영혼 천도 의식의 구조에 참여하여 高麗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른 것이 오늘날의 引路王菩薩신앙이라 믿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같은 引路王菩薩신앙은 唐에서는 引路王菩薩이 갖는 영혼 천도 의식을 통하여 극락에 왕생하는 왕생인을 내영하는 기능이 地藏菩薩 혹은 觀世音菩薩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많았음을 살필 수 있다.[17] 다시 말하면 地藏菩薩과 觀世音菩薩圖, 引路王菩薩과 같이 왕생인을 극락에 내영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高麗의 정토교 신앙을 두 계통으로 나눈 전술한 입장에서 본다면, 高麗의 地藏十王圖는 후자의 계통에 속하며 이같은 地藏十王圖는 정토교에서 말하는 내영 사상도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圖 4).

지금까지 논술한 것을 요약해 보면 淨土佛畫에서 이해된 일반적인 阿彌陀來迎圖는 고려불화에서는 발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淨土佛畫에서의 來迎圖는 觀經變相圖에 도설되었고, 이같은 觀經變相의 신앙 사상에서 내영사상이 특히 고조됨으로써 독립적인 來迎圖가 성행한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 고려의 觀經變相은 來迎圖를 도설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내영 사상도

15) 洪潤植, 前揭書, 「李朝佛敎儀禮의 構成內容」편 참조.
16) 宋　蘇洵, 「極樂院造六菩薩記」, 『嘉祐集』 卷14에
"解冤結引路王 置於極樂院 阿彌陀如來之堂 庶幾死者有知"의 기사가 주목된다.
17) 『嘉祐集』, 六菩薩 참조.

강조되지 않았다. 그러나 반면 왕생인에게 장차 성불함을 보장하는 授記圖가 來迎圖 대신 觀經變相에 도설되었으며 그 독립적인 도설도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고려의 淨土敎는 전술한 바와 같은 觀經變相 계통의 불화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신앙체계 이외의 또다른 계통의 신앙체계를 살필 수 있겠는데 高麗佛畫로서의 地藏十王圖 등은 후자의 정토교 신앙의 전개에 따른 불화라 할 수 있음이 그것이다. 그리고 후자의 정토교 신앙은 교의적인 면보다는 信仰儀禮의 체계라는 특징을 지니는데 이 계통의 정토교 신앙에서 고려의 來迎圖가 전개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地藏十王圖 등은 이 계통의 정토교 신앙체계에서 보면 來迎圖로서의 성격을 지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을 다시 정리해 보면 고려의 정토교 사상은 두 계통으로 살필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상류층에서 이해된 『無量壽經』 중심의 정토교로서 이는 고려후기에 와서 禪淨融合의 사상에 의하여 禪宗思想과 결합한 경향을 보이고 한편 이 계통의 정토교에서는 無量壽經사상이 강하게 수용된 觀無量壽經變相을 발전시켰으나 來迎圖의 전개를 가져오지 못하였으며 전술한 사상적인 특징에 의하여 오히려 觀經變相에서 授記圖를 발전시킨 결과를 가져왔고 독립된 授記圖도 전개시켰다.

이와같은 사실은 信仰儀禮를 통하여 살필 수 있는 고려의 정토교 신앙체계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데 이 계통의 정토교는 密敎와 결합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來迎思想이 발달하였고 따라서 來迎儀式도 발달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오늘날에 전하는 高麗의 地藏十王圖는 이 계통의 淨土敎佛畫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한편 來迎圖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같은 密敎 계통의 내영 사상이 발달하기까지에는 引路王菩薩信仰의 전개가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2. 高麗淨土敎畫에 있어서의 來迎圖

1) 來迎圖의 性格과 그 展開

來迎圖란 念佛修行者가 임종시에 阿彌陀三尊 혹은 諸聖衆의 내영을 받아 極樂淨土에 왕생한다는 『淨土三部經』의 往生 관계 敎義에 근거한 도설이다. 이 來迎圖는 淨土敎畫에서 극락의 모습을 묘사한 淨土變·觀經變相 등과 더불어 2대 주류를 이루는 중요한 도설의 하나이다. 그러면 먼저 『淨土三部經』은 내영을 어떻게 說하는가를 살피고 나아가 이같은 내영의 교설이 어떻게 도설화되는가를 살피기로 한다.

『無量壽經』은 그 下卷에서 왕생인의 자격과 正因을 설하였고 왕생인의 三輩不同을 설하면서 왕생인에 대한 내영의 교설을 다음과 같이 남겨 놓았다.[18]

上輩者 捨家棄欲 而作沙門 發菩提心
一向專念無量壽佛 修諸功德 願生彼國
此等衆生 臨壽終時 無量壽佛 與諸大衆
現其人前 卽隨彼佛 往生其國

18) 『無量壽經』卷下, 衆生往生의 因果편 ; 模利憲明, 『淨土三部經』, 京都, 平安專修學院藏版.

즉, 上輩라는 것은 가정을 버리고 욕망을 떠나 僧이 되고 菩提心을 일으켜 無量壽佛을 一心으로 念하여 갖가지 善根을 쌓은 자들이다. 이와같은 사람들을 임종시에 無量壽佛과 菩薩들이 마중을 온다는 것이다. 또한 中輩에 대해서는

中輩者 十方世界 諸天人民 其有至心……
……其人臨終 無量壽佛 化現其身

이라 하였고[19] 下輩에 관해서는

下輩者…願生其國 此人臨終 夢見彼佛 亦得往生[20]

이라 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無量壽佛의 極樂淨土에 왕생할 수 있는 자는 모두가 자격이 같은 것이 아니라 上·中·下의 三輩로 나뉘어지고 그 자격에 따라 임종시의 내영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上輩는 직접 無量壽佛과 菩薩들의 내영을 받으며 中輩는 無量壽佛의 化佛과 그 聖衆의 내영을 받으며, 下輩는 꿈과 같이 佛의 내영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觀無量壽經』은 내영에 대한 보다 상세한 교설을 남겨 놓았다. 즉 『無量壽經』에서는 왕생인을 下·中·下의 三輩만으로 나누고 그에 대응한 佛·菩薩의 내영을 설하였는데, 『觀無量壽經』은 上·中·下輩를 각각 上·中·下로 나누어 소위 말하는 九品의 왕생인을 설하였고, 또한 그에 대응한 내영의 모습을 설하였다. 이들 개요를 아래에서 소개해 보면,[21]

(1) 上品上生人 : 왕생시 阿彌陀如來는 觀音·勢至와 무수의 化佛聖衆과 더불어 왕생인을 내영한다.
(2) 上品中生人 : 임종시에 阿彌陀如來는 觀音·勢至와 무량의 대중과 더불어 내영한다.
(3) 上品下生人 : 임종시에 阿彌陀如來는 觀音·勢至와 5백의 化佛과 더불어 내영한다.
(4) 中品上生人 : 임종시에 阿彌陀如來의 내영을 받는다.
(5) 中品中生人 : 임종시에 阿彌陀如來의 광명으로써 내영을 받는다.
(6) 中品下生人 : 임종시에 善知識을 만나 불법을 듣고 극락에 왕생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내영에 대해 직접 설하지 않았으나 善知識을 만난다는 經意는 내영을 뜻한다.
(7) 下品上生人 : 化佛·化菩薩인 阿彌陀·觀音·勢至의 내영을 받는다.
(8) 下品中生人 : 天에서 꽃을 뿌리고 그 꽃속에 化佛·化菩薩이 있어 왕생인을 내영한다.
(9) 下品下生人 : 下品下生人에게는 佛菩薩 및 聖衆의 내영도 없고 佛菩薩·化佛의 내영도 없으며, 다만 金色蓮華가 내영한다.

이상 『觀無量壽經』에 설한 내영의 교설을 보면 九品으로 나눈 왕생인의 자격에 따라 내영의 聖衆과 모습이 다른 것임을 살필 수 있는데 그를 대별하면,

19) 前揭書, 中輩편 참조.
20) 前揭書, 下輩편 참조.
21) 前揭書, 『觀無量壽經』 散善義편 참조.

(1) 阿彌陀如來와 觀音·勢至 그리고 무수의 聖衆

(2) 阿彌陀如來와 觀音·勢至의 化佛·化菩薩

(3) 金色蓮華

등이라 할 수 있다. 한편 『阿彌陀經』에 의하면 왕생의 正因을 밝힘에 역시 다음과 같은 왕생인에 대한 내영의 교설을 남겼다.

其人臨終時 阿彌陀佛 與諸聖衆 現在其前 是人終時 心不顚倒 即得往生 阿彌陀佛 極樂淨土[22]

즉 염불수행자는 임종시에 阿彌陀如來가 많은 성중과 더불어 내영을 함으로써 극락에 왕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淨土三部經』은 모든 念佛修行者가 임종시에 전부 내영을 받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無量壽經』은 왕생인을 上·中·下의 三輩로 나누어 내영의 성중이 다름을 밝혔으며, 『觀無量壽經』은 더욱 구체적으로 왕생인을 九品으로 나누어 그에 대응한 내영의 성중이 다르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살핀 바이다. 『阿彌陀經』은 다만 一心으로 阿彌陀如來의 名號를 부를 만한 수승한 사람들은 누구나 阿彌陀佛 및 諸聖衆의 내영을 받는다고만 밝히고 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은 淨土敎에서 내영의 교설은 어떻게 도설화되고 來迎圖로 전개되는 것일까. 현재까지 발견된 자료에 의하면 來迎圖가 처음부터 독립된 그림으로 도설되었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다만 觀經變相 등에서 散善義의 九品往生人을 도설함에 각 品마다 내영의 相이 묘사되었음을 살필 수 있는데 이같은 觀經變相圖에서 來迎相이 來迎圖로서의 시원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23]

그리고 이어 독립적인 도설로서의 來迎圖가 출현하게 되었고 그것이 회화적인 발전을 가져오기까지에는 정토교의 새로운 전개라는 커다란 매개체를 필요로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즉 극락왕생에 대한 신앙 사상이 더욱 심화되고 왕생에 대한 신속성이라는 願望이 그대로 來迎圖로 표현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다. 아뭏든 이같은 내영도는 전술한 『淨土三部經』의 내영의 교설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실제로 내영도가 묘사됨에는 經典의 내영이 보다 확대해석되어 도설되었거나, 아니면 善導 등의 『觀無量壽經統疏』에 근거한 예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다.[24] 그리하여 내영도가 독립적인 도설로 발전·전개되면서 각종 형식의 내영도를 출현시키게 되었다. 특히 이같은 독립적인 來迎圖는 日本에서 크게 발전하였는데, 日本來迎圖의 형식을 보면 우선 다음과 같은 몇가지 유형을 살필 수 있다.[25]

---

22) 前揭書, 『阿彌陀經』 廣勤편 참조.

23) 日本의 觀經變相 참조.
岡崎讓治, 「淨土敎畫」, 『日本の美術』12, No.43 참조.

24) 中國 善導大師의 『觀無量壽經疏』의 中品下生 등에는 來迎의 敎說을 남겨 놓지 않았으나, 日本 등에 전하는 觀經變相에 中品下生의 來迎圖가 도설되었음이 그것이다.

25) 「淨土敎畫」, 『日本の美術』12, 참조.

(1) 通形來迎 : 좌상방에서 우하로 내영해 오는 형식

(2) 正面來迎 : 정면에서 내영해 오는 형식

(3) 還來迎 : 전술한 두 형식이 마중을 오는 형식을 묘사한 것이라면, 還來迎은 맞이하여 돌아가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이는 한편 阿彌陀佛의 來迎引接의 증명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4) 기타 : 이 외 來迎聖衆에 따라 阿彌陀三尊立像來迎 聖衆來迎 등 다양한 來迎圖의 형식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각종 형식의 來迎圖에서 공통적인 특징은 來迎聖衆이 모두 구름을 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구름이야말로 來迎圖 여부를 가려내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26]

한편 이 같은 來迎圖에서 구름의 묘사는 또한 來迎圖의 다른 한 특징을 나타내기도 한다. 즉 구름의 묘사에 따라 早來迎·迅速來迎 등의 來迎圖를 살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阿彌陀來迎圖에 대한 일반론을 살펴 보았다. 이제 韓國에서의 來迎圖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2) 高麗佛畫에 있어 來迎圖와 몇가지 問題點

지금까지 한국불화에서 독립적인 來迎圖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연전에 日本 大和文華館에서 '高麗佛畫展'이 개최된 이래 현존하는 80여점의 高麗佛畫중 6점의 불화가 독립적인 阿彌陀來迎圖로 지목되어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27]

그런데 高麗의 阿彌陀來迎圖로 알려진 이들 불화는 來迎圖로 단정짓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남아 있어, 이들 문제점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음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한국에도 阿彌陀佛의 내영사상은 일찌기 신라시대부터 있었음을 살필 수 있다.[28] 그리하여 한국불화에도 阿彌陀來迎圖의 존재는 충분히 예상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4점이 전해지는 高麗觀經變相에 來迎圖가 도설되지 않았거나, 도설되었다 하더라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오늘날에 전해지는 高麗觀經變相이 그려진 고려말에는 내영사상이 퇴화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來迎圖의 시원은 觀經變相에서 찾을 수 있고, 한편 觀經變相은 九品往生人에 대한 阿彌陀聖衆의 來迎圖로 묘사되는 것이 통례로 되기 때문이다.

오늘에 전하는 고려시대의 觀經變相은 4점이 있으나 이 중 2점은 序品變相으로 여기에서는 來迎圖가 도설되지 않았음이 經意로 보아서도 옳은 것이다. 그러나 2점의 觀經變相은 觀經十六觀變相인데, 여기에서는 第十四·第十五·第十六觀에서, 즉 三輩九品往生人이 阿彌陀聖衆의 내영을 받

26) 前揭書 참조.
『高麗佛畫』(日文)에 대한 朝日新聞의 圖版해설 28에서 "足許に赤い 湧雲があり、來迎形が思わせる"라 하였음이 그것이다.

27) 朝日新聞에서 발간한 『高麗佛畫』에서는 來迎圖를 지적하지 않았으나, 中央日報에서 발간한 『高麗佛畫』에서는 6점의 來迎圖를 도판해설에서 지적하였음이 그것이다.

28) 『三國遺事』 郁面婢의 念佛修行에 따른 阿彌陀佛의 來迎이 그것이다.

는 장면을 묘사하게 됨이 觀經變相圖의 통례이다.[29]

그러나 고려의 觀經十六觀變相에서는 그러한 것을 찾아 볼 수 없다. 여기에서 高麗佛畫는 내영사상이 강조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阿彌陀來迎圖가 성행할 수 있는 소지가 희박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 대신 고려의 觀經變相에서는 日本이나 中國의 觀經變相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 즉 觀經變相의 구도도 전혀 다르거니와, 知恩院 소장 觀經變相의 좌우 외연의 他方菩薩蓮池와, 西福寺 소장 觀經變相의 하방 往生蓮池 좌우의 阿彌陀授記圖의 도설이 그것이다.

高麗觀經變相에 대한 구체적인 구명은 필자가 이미 여러차례 상세히 논술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더 자세한 설명을 피한다. 다만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전술한 西福寺 소장 觀經變相에서 阿彌陀授記圖라 생각되는 부분도에 주의력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 부분도는 고려의 阿彌陀來迎圖를 규명함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文明大 敎授는 이 부분도를 다음과 같이 밝혀 놓았다.[30]

> "못의 좌우 각각 넓은 臺인데 서 있는 부처님이 엎드려 배례하는 위데희 왕비에게 나타나는 장면을 묘사하였는데, 좌우가 대칭되게 꼭 같은 구도와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은 阿彌陀三尊에게 위데희 왕비 등이 친견하는 내용의 경전을 도상화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釋尊王宮湧出圖일 가능성도 있다."

고 하여 모호한 설명을 하였다. 이 부분도를 얼핏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그림은 阿彌陀三尊에게 위데희왕비 등이 친견하는 내용의 경전을 묘사한 것도 아니고, 釋尊王宮湧出圖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도가 觀經變相의 전체 구도에서 어느 부분에 묘사되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를 지니는데, 이 부분도는 『觀無量壽經』에서는 散善義에 해당하는 第十四·第十五·第十六觀의 部分圖上에 도설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釋尊이 위데희 왕비의 請에 의하여 『觀無量壽經』을 설하나, 위데희왕비를 위하여 설한 부분은 十六觀 중 定善義에 해당하는 十三觀까지 이다. 이어 釋迦는 散亂心의 범부들을 위하여 上輩·中輩·下輩의 三輩九品을 설하여 극락 왕생의 길을 밝힌 것이다. 즉 『觀無量壽經』에서 散善義란 모든 범부 중생을 위한 교설로 위데희왕비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설법인 것이다. 그러므로 第十四·第十五 第十六觀의 九品圖에서 위데희왕비는 도설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定善義에서는 위데희왕비만을 위한 교설이므로 위데희왕비가 많이 도설되었다.

한편 釋尊王宮湧出圖로서의 가능성도 없다는 것은 이 그림이 序分變相이 아니라 十六觀變相이기 때문이다. 釋尊王宮湧出圖란 『觀無量壽經』을 설하게 된 인연을 설명한 『觀無量壽經』의 序分變相의 부분도이기 때문에 十六觀變相의 부분도로서 도설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 부분도는 어떠한 성격의 것일까. 우선 필자는 이를 앞에서 왕생인에 대한 阿彌陀聖衆의 授記圖라 가정해 보았는데, 그 근거를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

29) 『觀無量壽經』의 經意와 日本 觀無量壽經變相 등 참조.
30) 文明大, 「高麗觀經變相圖의 硏究」, 『佛敎美術』6, 東國大學校博物館.

이 부분도는 얼핏 보면, 또한 아미타여래도로 오해 받기 쉽다. 왜냐하면 阿彌陀佛과 그 聖衆이 내영도에서 볼 수 있는 내영의 형식을 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부분도가 觀經變相의 九品圖上에 도설되었다는 점도 내영도로 볼 수 있게 한다. 왜냐하면 觀經變相에서 내영도가 도설되는 것은 九品圖에만 도설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이 부분도가 내영도로서 이해될 수 있는 몇가지 조건을 지니면서도 내영도가 될 수 없는 것은 阿彌陀佛 및 그 聖衆이 구름을 타지 않았고 땅 위에 서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은 世俗이 아닌 극락의 땅이다. 『淨土三部經』의 내영에 관한 교설은 극락세계에서 왕생인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此岸으로 와서 왕생인을 맞이해 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내영도는 구름을 탄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극락세계에서 기다렸다가 왕생인을 맞이하는 것은 내영이 아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의 의문을 풀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료가 양쪽 부분 그림의 상방에 남긴 銘文이다. 즉 우측에는 '初生接引授記文處'라 하였고 좌측에는 '初生接引摩頂之處'라 하였음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摩頂之處와 授記之處는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 같으나, 결국 摩頂과 授記는 같은 의미이다. 즉 머리를 쓰다듬으며 授記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양쪽의 그림은 그 銘文에 따라 각각 다른 뜻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같은 뜻을 지니는 授記의 장면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더 구족해서 말하면 摩頂授記가 되는 셈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 그림에서 阿彌陀如來를 향하여 엎드려 예배하는 사람은 위데희왕비가 아니라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念佛修行에 의하여 극락정토에 왕생한 왕생인 일반인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上品往生人이다.

그러면 阿彌陀如來의 授記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를 經典에서 살펴 보면『觀無量壽經』散善義 上品上生의

歷事諸佛 徧十方界 於諸佛前 次第授記

를 말하는 것인데[31] 즉 上品上生의 왕생인이 극락에 왕생하여 佛菩薩의 설법을 듣고 無生忍을 깨닫고, 잠깐 사이에 제 佛國을 돌아 菩薩行을 修하고, 다시 돌아와서 無量의 法門을 깨닫고 성불하게 될 것을 증명받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上品中生에서는[32]

徧至十方 歷事諸佛 於諸佛所 修際三昧 經一小劫 得無生忍 現前授記 是名上品中生

이라 하였는데, 즉 이는 上品中生의 왕생인은 극락에 왕생하여 자유로이 十方諸佛에게 참배하여 三昧를 닦고, 一小劫을 지나 無生忍을 얻고 성불할 수 있다는 증명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授記란 往生人이 왕생후 성불하게 된다는 증명을 阿彌陀如來로부터 받게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念佛修行者는 임종시에 그가 닦은 수행의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르게 極樂聖衆의 내영을 받아 극락에 왕생하고, 이렇게하여 왕생한 왕생인은 다시 얼마를 지나서 그곳에서 성불하게 될 것을 증명받게 되는데 이를 授記라고 한다. 그러므로 來迎과 授記는 그 성격이 전

31)『觀無量壽經』, 『淨土三部經』.
32) 前揭書.

혀 다른 것이다.

이제 그러면 독립된 來迎圖로 알려진 고려불화가 과연 내영도일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高麗佛畫展이 日本 大和文華館에서 있은 후 고려불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韓國과 日本이 다같이 『高麗佛畫』를 출간하였다. 그런데 朝日新聞社에서 출간한 日本版 『高麗佛畫』에서는 來迎圖의 존재를 말하지 않았다.[33] 그러나 中央日報社 季刊美術이 발간한 韓國版 『高麗佛畫』에서는 6점의 불화를 독립한 阿彌陀來迎圖로 보았다. 이를 아래에 소개하면,

(1) 至元23年銘 自回筆 日本銀行 所藏 阿彌陀來迎圖
(2) 日本 京都府 八幡市 正法寺 所藏 阿彌陀來迎圖
(3) 日本 靜岡縣 熱海市 救世熱海美術館 所藏 阿彌陀三尊來迎圖
(4) 高麗佛畫(中央日報社출간) 圖版18 阿彌陀三尊來迎圖
(5) 日本 東京都 德川黎明會 所藏 阿彌陀九尊來迎圖
(6) 日本 根津美術館 所藏 阿彌陀九尊來迎圖

와 같은데 이상 6점의 불화를 하나 하나 살피면서 과연 이들 불화를 來迎圖로 볼 수 있을 것인가를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먼저 根津美術館 所藏 阿彌陀九尊圖는 얼핏 보면 뒷 배경에 구름을 묘사하여 내영도로 보기 쉽다. 그러나 다시 그 뒤에 극락의 寶樹가 묘사되었음은 이 그림이 내영도가 아님을 스스로 말해 주는 셈이 된다.

왜냐하면 전술한 대로 내영의 공간은 극락이 아니며 此岸과 극락을 잇는 지점이 되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영은 극락세계에서 阿彌陀如來가 세속에까지 가서 왕생인을 영접해 오는 것이므로 극락세계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묘사한 이 그림은 내영도일 수 없다. 오히려 전술한 西福寺 소장 觀經變相 하방 좌우의 授記圖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다.

高麗佛畫(中央日報社출간) 圖版18 阿彌陀三尊圖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그림은 현재 湖岩美術館에 소장되어 있는데 그 형식이 西福寺 소장 觀經變相授記圖 부분과 같은 점을 느낄 수 있다.

다만 脇侍菩薩이 勢至菩薩에서 地藏菩薩로 바뀌기는 하였지만, 이같이 勢至가 地藏으로 바뀌는 것은 일찌기 中國에서도 唐에서부터 있어 왔으며[34] 그 같은 형식이 고려에 전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 그림은 내영도로 볼 수 있기도 하지만 내영도로서 반드시 있어야 할 구름이 묘사되지 않았다는 것은 또한 내영도로서의 의문을 갖게 한다. 阿彌陀三尊圖의 정면에서 阿彌陀如來의 방광을 받는 인물은 내영을 받는 장면이 아니라 왕생 후 授記를 받는 장면으로 보아야 옳을 것이다. 이 같은 형식은 高麗觀經變相의 변형이라 할 수 있는 조선시대의 極樂九品圖에서도 살필 수 있다.[35]

33) 『高麗佛畫』, 圖版解說편, 朝日新聞社
34) 『敦煌의 佛畫』 참조.
35) 朝鮮時代의 極樂九品圖에도 얼핏 보면 來迎圖로 볼 수 있는 부분도가 있으나 이는 授記圖라 생각된다.

이 외에 來迎圖로 이해되는 다른 4점의 고려불화도 德天黎明會 소장 阿彌陀九尊來迎圖를 제외하면, 내영도로서 갖추어야 할 구름의 묘사가 없다. 그리하여 이들 佛畫를 내영도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세를 비스듬히 하는 형식은 내영도일 수도 있지만 授記圖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내영도에서 응당 묘사되어야 할 구름의 묘사가 없다면 더욱 내영도로서의 의문을 남기게 한다(圖.5).

Ⅳ. 高麗地藏圖의 淨土佛畫的 性格

오늘날에 전하는 80여 점의 고려불화 중 10점의 地藏關係圖가 전한다. 前章에서 이들 地藏관계 圖說에 관하여 언급할 때, 이들은 極樂淨土圖의 새로운 전개로 볼 수 있을 것이라 밝힌 바 있으나 과연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문제이다.

地藏관계 圖說은 일찌기 敦煌佛畫에서 찾아 볼 수 있고[36] 地藏信仰은 中國을 비롯하여 韓國과 日本 등에서 일찍부터 널리 신앙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지장신앙이라 하더라도 中國과 韓國 또는 日本이 신앙적인 차이점을 보이며[37] 또한 시대에 따라서는 변화를 달리하였다. 여기에서 다같이 지장신앙을 주제로 하였다 하더라도 신앙의 차이에 따라 圖說내용에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양식상의 특징도 달라진다.

韓國의 지장신앙은 대체로 지옥과의 관계에서 생각할 수 있고 다른 한편 극락왕생과의 관계에서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이들 양자는 서로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지만 어느 쪽이 더 강조되느냐에 따라 신앙의 형태가 달라지고 따라서 그를 주제로 한 도설의 내용도 달라진다. 즉 地藏圖가 될 수도 있고 極樂淨土圖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地藏圖는 前者의 성격을 지닌 것이 많이 도설되었고 고려시대의 地藏圖는 後者로서의 성격을 보다 강하게 지닌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本章에서도 이같은 地藏圖의 성격과 그 형성과정을 살피고 高麗地藏圖가 지니는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高麗地藏圖의 圖說內容과 樣式上의 特徵

고려불화로 알려진 지장도는 모두 10점이 전하나 이 중 4점은 獨尊, 4점이 地藏十王圖, 1점은 地藏三尊圖, 1점은 地藏三尊神衆圖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4점의 獨尊圖 중 3점은 立像, 1점이 座像이다. 地藏十王圖는 좀 더 복잡한 구도 내용을 지니는데 아래에서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日本 日光寺 所藏 地藏十王圖

상단 地藏菩薩本尊을 중심으로 하여 本尊臺座 아래쪽 좌우에 脇侍한 道明尊者·無毒鬼王, 護法聖衆인 四天王·大梵·帝釋, 그리고 그 아래쪽 좌우에 冥府十王, 그 아래쪽 좌우에 冥府十王의

36) 沈以正, 『敦煌藝術』, 臺北, 雄獅圖書出版公社 1980. p.66.

37) 韓國에서의 地藏信仰은 冥府에서 地獄衆生을 구제하는 신앙형태를 지니나, 日本에서는 교통안전·어린이보호·신앙 등의 형태를 지님이 그것이다.

권속인 判官·使者·錄司 등이 도설되었다.

(2) 西獨 베를린 東洋美術館 所藏 地藏十王圖

전자의 도설과 같은 구도내용을 지닌다. 즉 脇侍로서 道明尊者·無毒鬼王, 護法聖衆으로서 大梵·帝釋·四天王·冥府十王과 그 권속인 判官·錄司·使者 등이 도설되었다. 그리고 이들 尊像의 배열도 똑같은 형식을 지닌다. 다만 本尊인 지장보살의 頭形이 전자에서는 比丘形인데 여기에서는 두건을 썼음이 다르다. 頭光 등의 光背가 二重圓形光背를 이루었음도 모두 같다.

(3) 日本 靜嘉堂 所藏 地藏十王圖

이상의 地藏十王圖를 조선시대의 것과 비교해 보면 우선 이 시기에도 고려 地藏十王圖에서 볼 수 있는 제 존상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배열이 고려불화에서는 제 尊像을 本尊인 地藏像의 臺座 아래쪽 좌우에 배열하였음에 반하여 조선시대의 地藏十王圖는 제 尊像의 배열이 위쪽으로 올라온다는 특이점을 지닌다. 이 같은 구도는 고려불화와 조선불화를 비교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은 어떤 뜻을 지니는 것일까. 모르기는 하여도 지장신앙이 점차 분화되어 제 尊像에 대한 신앙이 더욱 강조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조선시대의 地藏十王圖에는 六光菩薩이 배열되었다는 데서 더욱 확신을 갖게 한다.[38]

이를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고려시대의 地藏十王圖에서 冥府十王 및 그 권속은 아직도 독자적인 신앙이 크게 강조되지 않았음에 반하여, 조선시대의 地藏十王圖에서는 비록 地藏圖에 종속적으로 참여한 冥府十王이긴 하지만, 그 신앙적인 기능이 더욱 강화된 것을 뜻한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地藏十王圖에서 독립된 十王圖를 별도로 도설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편에서 보면 지장신앙의 순수성이 희박하여 다른 이질적인 신앙요소가 강조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오히려 十王信仰의 기능이 강화되므로써 지장신앙의 기능이 더욱 강화된다는 역설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은 이상의 地藏十王圖가 지니는 하나의 내용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어 더욱 흥미를 끌게 한다.

다음에 고려할 것은 地藏三尊圖의 本尊臺座 좌우에 脇侍인 道明尊者와 無毒鬼王을 배열한 구도이다. 道明尊者는 구족하여 助揭眞化道明尊者라 하며, 無毒鬼王은 助佛揭化無毒鬼王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지장보살이 冥界에서 지옥중생을 구제하는데 조력적인 기능을 가지는 左右脇侍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地藏獨尊圖·地藏十王圖·地藏三尊圖·地藏三尊神衆圖는 신앙 형태로 보아서는 같은 형태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세 유형의 지장도는 지장신앙의 독립적인 신앙형태가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즉 地藏獨尊圖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지장 이외의 다른 신앙적인 요소를 찾아 볼 수 없고, 地藏三尊圖는 道明尊者와 無毒鬼王이 『地藏菩薩本願經』에 근거한

38) 六光菩薩이란 地藏菩薩이 六道衆生을 구제하기 위하여 六道에 각각 나타나는 六地藏을 말한다. 『地藏本願經』 참조.

脇侍라는 데 역시 지장신앙 이외의 다른 신앙적 요소를 찾을 수 없다.

地藏三尊申衆圖는 四天王·大梵·帝釋을 護法聖외에 다른 신앙적인 뜻은 살필수 없다. 그러나 地藏十王衆으로 배열한 이 圖는 지장신앙과 더불어 冥府十王信仰이 혼합된 것임을 살필 수 있다. 그러면 지장보살이란 도대체 어떤 보살인가. 그리고 그 신앙형태는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살펴 보자.

2. 地藏信仰의 展開와 高麗地藏圖의 性格

地藏이란 梵語로 ksitgarbha라 하며 忉利天에서 석가여래의 부촉을 받고 매일 晨朝에 恒沙禪定에 들어가 衆機를 관찰하여 석가와 미륵의 중간인, 부처님 없는 세계에서 六道衆生을 교화하는 大悲의 보살이라 한다.[39] 그러나 이와같이 六道衆生을 교화한다는 地藏은 일찍부터 六道衆生 중에서도 특히 지옥중생을 구제한다는 보살로 널리 신앙되어 왔다. 즉 지장보살신앙의 所以經典이라 할 수 있는 『地藏菩薩本願經』에 의하면 지장보살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是迷路人 忽聞是語 方知險道 即便退步 求出地路 是善知識 提携接手 引出險道 免諸惡道 至于好道 全得安樂

이에 의하면 지장보살은 冥界에서 반드시 지옥중생을 구제한다는 신앙적인 기능을 갖는 것만은 아니다. 오직 미로에 허덕이는 중생으로 하여금 바른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보살이다. 『地藏菩薩本願經』의 주석서 등은 冥界와의 관계에서 地藏을 이해하려 한다. 즉

地藏菩薩 爲閻羅王也 使者是五官神也 是閻羅王 所領神爲人也 引其神議者 引病人第六意識爲神也[40]

라 하여 이같은 주석서에 의하여 지장보살이 비로소 冥府에서 十王의 심판을 받는 지옥중생을 구제하는 보살로 나타난다. 『地藏菩薩本願經』의 주석서는 이 외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41] 그러나 고려에서는 어떠한 주석서에 의해 지장신앙을 이해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대체로 信仰儀禮의 儀軌文인 『閻羅王豫修生七往生淨土經』에 의하여 지장신앙이 유포된 것으로 이해된다.[42] 즉 高麗地藏圖에 地藏十王圖가 도설되었다는 것도 그를 알려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같은 지장신앙은 극락정토에 왕생하려는 정토교 신앙의 다른 형태로 볼 수 있다. 즉 이같은 정토교 신앙은 念佛功德에 의한 것이 아니라 地藏의 接引에 의하여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地藏菩薩本願經』의 '引出險道 免諸惡道' 중에서 '險道'가 주석서에는 地獄으로 이해되고 '免諸惡道'가 극락왕생으로 신앙되어 지장신앙이 극락왕생신앙의 한 형태를 취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중생은 사후에 冥界에 가서 生前罪業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冥界를 주재하

39) 『地藏菩薩本願經』·『地藏十輪經』 地藏十輪刊 참조.
40) 「覺禪地藏上」 참조.
41) 洪潤植, 『韓國佛教儀禮の研究』 東京, 隆文館 1976, p. 405.
42) 洪潤植, 前揭書 p. 407.

는 10인의 심판관인 十王에게 10번이나 심판을 받고 地獄行이나 極樂行이 결정된다는 十王思想이 淨土를 희구하는 마음을 조장하기 위한 반대 개념으로 강조된 데서 地藏圖에 十王圖가 도설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핀 바에 의하면, 고려시대의 地藏은 極樂往生 사상에서 중생을 극락으로 접인하는 보살로서 신앙된 것이 틀림없으며, 따라서 고려의 地藏圖에서는 極樂接引의 地藏信仰이 도설화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前章에서 고려불화에는 極樂來迎圖가 발달하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이 地藏圖를 통해 형태를 달리한 高麗人의 來迎思想을 읽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까지 전술한 것을 종합하면 고려의 淨土敎畫는 두 계통의 유형으로 생각될 수 있다. 즉 그 하나는 전통적인 고려의 淨土敎思想을 배경으로 한 본격적인 淨土敎畫이며, 다른 하나는 보다 대중적으로 전개된 信仰儀禮 위주의 密敎的 淨土敎畫이다. 여기에서 전자로는 觀經變相圖와 阿彌陀尊像畫를 들 수 있으며, 후자로는 地藏關係圖를 들 수 있겠다. 즉 전자는 정토교 사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심오한 신앙심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같은 두 계통의 淨土敎畫는 조선시대로 이어지면서 다시 양식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즉 조선시대가 되면 본격적인 淨土敎畫는 정토교 사상과 더불어 쇠퇴하고[43] 信仰儀禮 위주의 밀교적인 정토교화는 보다 다양한 전개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조선시대가 되면 淨土敎는 다양한 信仰儀禮를 전개시켰는데[44] 그 결과 밀교적인 정토교화라 할 수 있는 甘路幀畫와 十王幀畫 등을 발전시켰고, 地藏圖도 高麗地藏圖보다 다양한 전개를 보였음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Ⅴ. 高麗觀音圖의 淨土敎畫的 性格

고려불화로서의 觀音圖는 모두 12點이 傳한다. 이들 觀音畫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水月觀音이라 하고 있지만[45] 여기서는 이들 觀音畫의 그림으로서의 그같은 形式을 문제 삼고저 하는것이 아니라 그 主題가 무엇이였던가를 밝히고저 하는 바이다.

現存하는 고려불화로서의 觀音圖는 阿彌陀九尊·三尊 등에서의 觀音圖를 제외하면 거의 모두가 獨尊圖이다(圖 6).

獨尊으로서의 觀音圖는 대체로 모두가 寶冠에 化佛로서의 阿彌陀如來를 모신 像이다. 자세는 岩壁위에 앉아 왼다리를 내려 놓았으며 오른 다리는 왼다리 무릎위에 올려 놓고 머리로부터 온몸에 무늬 있는 투명한 沙羅를 감고 있다. 더러는 왼편에 대나무 두 그루가 올라가 있고 오른쪽 바위위의 투명한 그릇속에는 버들가지가 꽂힌 淨甁이 놓여 있다. 물건너에는 南巡童子[46]가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있으며 身光과 頭光이 그려져 있다. 오른팔은 무릎위에 내려져 있으며 손에 염주

43) 洪潤植, 『淨土思想』, 한겨레社, 1980, p. 40.
44) 前揭註 참조.
45) 李東洲, 「高麗佛畫帖畫를 中心으로」, 『高麗佛畫』, 中央日報社, 1981.
46) 南巡童子는 善財童子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南方에 있는 觀音淨土의 觀音을 巡訪하는 童子를 말한다. 『華嚴經』, 立法界品參照.

를 감고 있으며 왼팔은 바위에 기대어 있는것이 많다. 한편 南巡童子 이외에 海上龍王[47]의 보호를 받으며 觀音에게 參拜하려 오는 參拜者의 모습도 묘사하고 있다.[48]

要컨대 이들 觀音畫는 岩壁과 대나무 或은 버들가지들을 背景으로 하고 그에 座像을 나타낸 그림들이다. 그리고 그림으로서의 특색은 화사하고 섬세한 화풍을 한층 돋보이게 하는 그림이라 하겠는데 그 위에 아름답고 화려한 무늬의 世界를 나타내고 있음으로 더욱 이 그림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高麗觀音畫에서의 무늬는 하나 하나의 무늬로서도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그림전체에 조화를 이루게 하여 충만감을 갖게 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와같은 고려 觀音像에 대하여 元나라 湯后의 『畫鑑』에서는 고려의 觀音像은 심히 교묘하고 纖細하다고 하고 있으며[49] 한편 중국 郭若虛의 『圖畫見聞誌』에서는 고려 그림은 技巧가 정밀하다고 하고 있는바와 같이[50] 고려의 觀音像은 아름답고 섬세하고 神妙한 기운이 감돌게 하는 그림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高麗觀音畫의 특징적 요소를 두가지로 살펴 보았다. 즉 그 하나는 背景畫를 지니는데 그 背景畫는 바다 가운데 岩壁으로 된 섬이며 암벽으로 된 섬에는 대나무가 묘사되고 있다. 한편 이 섬을 巡禮하는 參拜者가 묘사되고 있고[51] 또한 參拜者를 보호하는 海上龍王像이 描寫되어 있다.[52]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같은 背景畫와 더불어 觀音像의 표현상 문양이나 線刻·色相·調和美 등에 있어 아름다움의 極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같은 觀音畫의 두가지 특징을 나타낼 수 있게한 思想的 배경이 무엇이였을까 한데 우리는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리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는 고려불화의 主題가 무엇이었던가를 살피는데 중요한 구실을 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觀音畫에서의 背景畫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 이는 두말할것도 없이 觀音의 淨土인 補陀洛迦山, 즉 補陀洛淨土를 나타내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李東洲敎授는 그 根據를 다음과 같은 『佛說高王觀音經』에서 살피고 있다.[53]

海中湧出普陀山 觀音菩薩在其間
三根紫竹爲伴侶 一枝楊柳酒塵風
鸚鵡銜花東供養 龍女獻寶寶千殿
脚踏蓮花千盈現 手持楊柳度衆生

그러면서도 李敎授는 이같은 高王經이 고려시대에 유통이 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지

47) 海上龍王은 南巡童子와 함께 觀音菩薩의 兩大脇侍로 信仰되어지는데 이는南方 海上에 있는 觀音淨土를 巡禮하는 者를 보호하는 호법신의 하나이다.
48) 日本大德寺所藏 觀音圖, 『高麗佛畫』, 中央日報, 1981.
49) 李東洲「高麗佛畫」, 『高麗佛畫』, 中央日報, 1981.
50) 前揭註.
51) 前揭註 48).
52) 前揭註.
53) 前揭註 49).

만[54] 觀音의 所居即 觀音淨土에 대한 根據는 高王經에서만 살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전에서도 살필 수 있게된다. 即 前記 高王經에서는 普陀山이라 하고 있지만 다른 근거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觀音의 淨土는 補陀洛山이라 하고 있다. 이는 梵語 potalaka의 音寫이며 補陀洛迦 寶陀羅라고도 한다.

이는 白華·小白華·小化樹라고 번역하며 光明 또는 海島라고도 한다. 원래는 印度南海岸의 地名이었으나 이곳이 觀世音菩薩의 住居로 傳해져 왔다고 한다.[55] 華嚴經十八에 의하면 南山에 山이 있고 補陀洛迦라 하고 여기에 菩薩이 있는데 觀自在라 이름한다. 이곳을 參禪할지어다[56] 하고 있으며 한편 補陀洛山은 山徑危險하고 岩谷欹傾하다고 하고 있다. 또한 同 華嚴經에서는 善財童子가 南方에 遊行하며 이 補陀洛山에 들어가 觀世音菩薩께 배알 하였다 하고 있다.

以上에서 보면 補陀洛迦山은 海邊에 있고 岩谷으로 되어 있으며 이곳의 觀世音菩薩께 參拜하는 求道者가 있었음을 살필 수 있겠다. 따라서 高麗觀音畫에 있어 海邊의 바위섬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은 觀音의 淨土인 補陀洛伽山을 描寫하고 있음이 틀림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에 있어 觀音의 淨土인 補陀洛山에 대한 觀音靈地信仰은 일찌기 新羅時代부터 東海岸의 洛山寺를 지목하여 왔고[57] 이같은 신앙은 고려시대에도 계승되어져 觀音信仰은 觀音淨土인 補陀洛山信仰과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필 수 있게 한다. 말하자면 이같은 觀音淨土의 觀音에 대한 信仰形態를 圖說한 것이 高麗의 觀音圖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觀音圖의 主題는 觀音淨土라고 하는 淨土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 하고 있는 것이 海上龍王의 보호를 받으면서 觀音淨土를 참배하는 참배인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며 南巡童子(善財童子)의 묘사도 이를 일러주고 있는 것이라 보아진다.

淨土라 하였을 때 그 槪念은 넓은 의미의 淨土와 좁은 의미의 淨土가 있다.[58] 여기 前者는 大乘佛教가 발전시킨 各種如來의 淨土 모두를 總稱하는 말이다. 즉 釋迦의 淨土로서의 靈山淨土(靈山會上)·彌勒如來의 彌勒淨土·阿彌陀如來의 極樂淨土·藥師如來의 東方藥師淨土 등이다. 그리고 彌勒菩薩의 兜率淨土·觀音菩薩의 觀音淨土(補陀洛山) 등도 모두 淨土의 개념에 포함된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의 淨土란 阿彌陀의 極樂淨土만을 지칭하게 되는 것이다.[59](圖 8).

그런데 여기 觀音의 淨土인 補陀洛山은 넓은 의미에서의 淨土의 개념이지만 간혹 阿彌陀淨土와의 관계에서 신앙 되어지기도 한다.[60]

어떻든 고려불화에서의 觀音圖는 淨土를 주제로 한것임을 앞에서 살필 수 있었다. 그것은 背景畫에서의 補陀洛山의 描寫에 많은 배려를 하고 있음에서 확실시 되는 것이라 하겠으나 그와 아울

54) 前揭註.
55) 『華嚴經』 卷18.
56) 前揭註.
57) 『三國遺事』, 義湘傳敎條.
58) 洪潤植, 『淨土思想』, 한겨레社, 1981. pp.3-5.
59) 前揭註.
60) 觀音信仰의 最初의 形態는 『淨土三部經』에 의한 阿彌陀의 脇侍로서의 觀音信仰에서 비롯되고 있음이 그것이다. 洪潤植, 『淨土思想』.

러 尊像의 描寫가 섬세하고 각종 문양의 조화 색상의 조화 등을 통하여 극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도 淨土를 주제로 하였음에서 가능하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淨土의 描寫는 審美感을 불러 일으키게 한다는데 강한 目的意識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Ⅵ. 高麗佛畫에 있어 淨土敎的 主題의 歷史的 意味

앞에서 살핀바에 의하면 현존하는 고려불화는 거의 대부분이 淨土를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羅漢圖가 몇 點 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려불화의 역사적 의미를 밝히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羅漢圖의 佛敎美術에 있어서의 類型은 禪宗畫에 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61] 또한 이는 淨土를 주제로 한 불화와 對比된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圖 9).

禪美術이란 禪宗의 美術을 말하고 禪宗도 佛敎의 한 宗派인 이상 넓은 意味의 佛敎美術임에는 틀림없는 것이라 하겠으나 다른 여타의 佛敎宗派에 比하여 그 발생적 의미를 전혀 달리 한다는데서 그 표현의 세계인 禪美術의 독립적 성립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즉 종래의 佛像이나 불화 등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禪宗이 표방하는 佛은 自佛是眞佛로서 自我의 完成을 강조한 나머지 自佛이 아닌 對象佛은 佛로서의 의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62] 이와 같은 禪宗의 입장에서 보면 종래의 佛像·佛畫 등에 의한 佛敎美術은 모두 부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禪美術은 意志的 男性宗敎로서의 羅漢像·達摩像같은 人格을 이상으로 하고 그를 표현 하고저 한다. 그러므로 禪宗에서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조각이나 畫像의 像形은 의지의 견고한 모습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고난을 극복하는 禪을 전파 하고자함에 본뜻이 있음을 알 게 해 준다.[63]

이에 비하여 淨土敎的 미술은 경건한 정토교적 신앙심이 그를 만들어내는 主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정토교적 인간상이 어떤 것인가 하는데로 접근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하나의 試論에 지나지 않으나 淨土敎的 佛敎의 人間像은 다음과 같은 것이라 생각된다.[64]

(1) 厭欣－이는 菩提心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淨土敎的 人間에게는 기본적으로 穢土를 厭하고 淨土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2) 調和－원컨대 모든 衆生과 더불어 극락에 往生하고저 한다는 和爲的인 것이 강조되는 인간상이다.

(3) 圓滿－禪이 意志的이고 男性的인 종교이며 따라서 羅漢과 같은 人格을 理想으로 함에 비하

61) 洪潤植, 『한국의 불교미술』, 대원정사, 1988. p. 18.
62) 洪潤植, 『禪美術의 世界』, 「한국의 불교미술」, 대원정사, 1981, p. 31.
63) 前揭註.
64) 洪潤植, 『한국의 불교미술』, 대원정사, 1981. pp. 18－20.

여 淨土敎는 觀音과 같은 女性的 감정이 풍부한 원만한 성격을 이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4) 端正－知·情·意가 평등하게 충만해 있는 교설이란데서 이같은 견해를 가질 수 있다.

(5) 無心 無碍－이는 아미타불을 盡十方無碍光佛이라고도 하는데 이와같은 佛에 귀의하는 인간상을 말한다.

이상과 같은 淨土敎的 불교의 人間像이 淨土敎的 불교미술에 표현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참된 淨土敎的 불교미술은 淨土敎的 人間의 표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65]

그러면 다음에는 이상과 같은 淨土敎的 人間像을 바탕으로 淨土敎的 불교미술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66]

첫째, 淨土敎 불교미술의 성격은 聖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淨土敎的 불교미술이 정토교적 인간의 厭欣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라면 정토교미술에 신성한 것이 내포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67] 그리고 이는 다른 한편 禪美術이 比岸性을 지님에 비하여 彼岸性을 지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禪美術이 지니는 比岸性도 聖의 부정을 특질로 하고 있는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淨土敎的 불교미술은 均齊라 할 수 있는데 이는 禪美術의 특질로서의 不均齊와 잘 대응하며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淨土敎的 불교미술은 극락세계의 아미타불은 悲智圖滿이라 하고 있는바와 같이 完全性을 지닌 圖滿性의 미술이라 할 수 있다.

넷째, 淨土敎的 불교미술은 至美라 할 수 있다. 이는 禪美術에서 볼 수 있는 不均齊 간결과는 달리 관경변상도와 같이 복잡한 구도를 지니나 均齊를 취한 調和美를 나타내고 있음을 말한다.[68]

이상에서 淨土敎的 불교미술을 禪美術과 對比하면서 淨土敎的 불교미술의 특질을 살펴 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살필 수 있는 것은 정토의 세계는 심미적 세계이며 그와 같은 심미적인 세계를 동경 한다는 것이 곧 往生思想과 직결되어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말하자면 至美·極美·神聖·圓滿·調和·彼岸性·完全性 등에 의하여 대표되어지는 淨土敎美術은 그 技法에 있어 섬세하고 화려하고 조화의 극치를 이루게 한다는 특질을 지니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에 傳하는 고려불화가 섬세하고 하려하고 조화의 극치를 이루게 한 神妙하다고 할만한 정교한 표현의 기법을 남기게 하였ᄃᆞᆫ 은 淨土敎的 人間像이 주체가 되어 淨土를 主題로 하였음에서 可能하였던 것이라 믿어진다.

이는 다른 한편 나한상등의 禪畫로서의 現存高麗佛畫와 對比될 수 있다는데서 그 역사적 위치를 살필 수 있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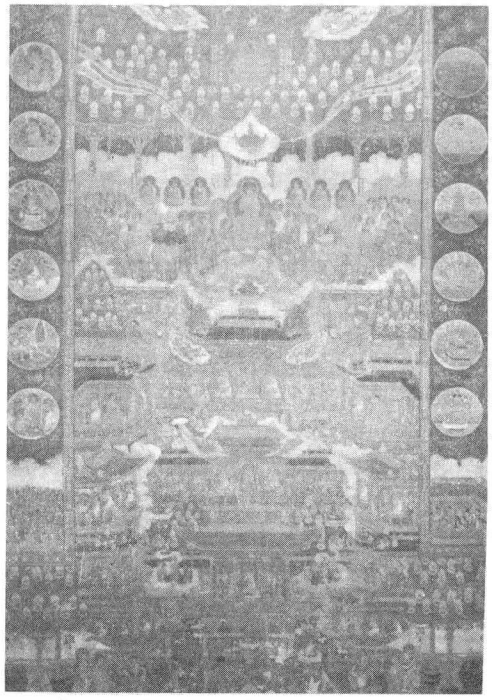
65) 前揭註.
66) 前揭註.
67) 前揭註.
68) 前揭註.

즉 다시 말하면 말하자면 禪敎 兩宗의 대립적인 입장에서의 불교미술의 發展樣相을 살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Ⅶ. 結 語

현존 고려불화는 100여점을 헤아리지만 寫經變相 등을 제외하면 80여점이 전한다. 그런데 이들 80여점의 고려불화를 主題別로 大別하면 淨土敎畫와 禪畫로 구분되어짐을 알았다. 淨土敎畫는 觀經變相·阿彌陀관계도 등의 순수淨土敎畫가 있고 地藏·觀音 등의 淨土敎畫가 있다. 여기 地藏과 觀音은 순수淨土敎畫의 部分圖로 圖說되는 경우와 獨立的인 世界를 圖說하는 경우가 있다. 독립적인 세계는 阿彌陀淨土와는 다른 세계이나 넓은 의미의 淨土를 具象化 하게 하고 있었다는데 공통점을 지닌다. 그리하여 이들 고려불화의 주제는 淨土에 두고 있었고 淨土가 지니는 審美的인 세계로서의 특질이 高麗人들에게는 잘 수용되어져 표현의 極致를 방불하게 하는 우수한 작품을 남길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중에도 특히 觀經變相과 觀音畫에 그와같은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단 두 점밖에 傳하지 않지만 彌勒下生圖의 경우도 淨土圖로서의 주제를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高麗時代의 佛敎는 禪美術도 발전시킬 수 있는 時代的 背景을 지니고 있었음은 高麗後期 普照이후의 高麗佛敎에서 禪風이 크게 진작되고 있었음에서 살필수 있겠으나 오늘에는 불과 4·5점의 禪畫가 傳해질 따름이다. 이들 禪畫는 前述한 淨土를 주제로 한 불교미술과는 대비되는 것으로 이들 兩者는 高麗佛畫의 큰 두기둥을 이루면서 서로가 각기 그 특성을 여지없이 발휘하려 하였던데서 高麗佛畫의 발전을 期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말하자면 禪敎兩宗의 佛敎美術이 제각기 그 특질을 具顯하려 하였던데서 고려불화의 발전을 期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圖 1〉 觀經變相圖(日本 西福寺 藏)

〈圖 2〉 彌勒下生變相圖(日本 親王院 藏)

〈圖 3〉 阿彌陀如來圖(日本 玉林院 藏)

〈圖 4〉 阿彌陀三尊圖(日本 救世熱海美術館 藏)

〈圖 5〉 阿彌陀九尊圖(日本 根津美術館 藏)

〈圖 6〉 水月觀音圖(日本 個人 藏)

〈圖 7〉 水月觀音圖(日本 大德寺 藏)

〈圖 8〉 彌勒下生變相圖(日本 知恩院 藏)

〈圖 9〉 五百羅漢圖(國立博物館 藏)